

EC HO

Vol.13

마치-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당신의 목소리, 에코를 통해 세상에 울려라

13

2018.MAR

EC HO

vol. 13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우혜정 Woo hye j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VOL 13 CONTENTS :

E

06 나도 했으니 너희도충분히 해낼 것이야!

에코를떠난 선배의이야기

08 2018, COMM TO YOU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회장의 이야기

09 새로운도전에 관한이야기

대구대축구부 DUF 편집장 유지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선배의이야기

C

15 3월은 마치 날 - 하계해 / 춘 3월

우리들의 MARCH 이야기

18 어서와 새내기는처음이지?

새내기를위한 헌내기의 꿀팁

H

20 신입생 버킷리스트

패기 넘치는 18학번의 버킷리스트

21 또 다른 출발선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학생 이야기

O

24 GIRLS CAN DO ANYTHING!

27 올해의 펜톤컬러

보라색의 예찬

29 방탄 소년단의 성공 이유

32 새내기 잘 꾸미자!

눈치 게임으로 성공하는 기본템 & 뷰티템

36 대학생 재테크의 첫 걸음, 통장 쏘개기

-

ECHO 인스타그램 OPEN!

@echo.korea



시작은 모든게 어색한단어

에코의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라' 라는 슬로건에 맞게
2017년 모두 함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함께하는 선배들이 멋있고 존경스러웠다.
에코에 애착 역시 커져갔다.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선배들에게
실망보다는 기쁨을 항상 선물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
에코 에디터 팀의 편집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아직은 많이 허술하고,
덤벼거리는 편집장이지만 졸업하신 에코 편집장 선배들을 본 받아
에코의 분위기에 맞는 편집장이 되고 싶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선배들에게 감사함을 에코로 보답해드리고 싶다.
/ 신임 에코 편집장 _ 우혜정

천천히 오래 울려 퍼질 수 있게,

지루한 일상, 외로운 하루에 당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에코는
평평한 물가에 돌맹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질 것 입니다.
찬란한 에코의 길에 빛나는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에코의 울림이 천천히 오랫동안 울려 퍼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임 에코 편집장 _ 권재승



E

engaging

내가 했으니, 너희도 충분히- 해낼 것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작년에 졸업한 14학번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ECHO 웹진 편집위원장을 맡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네요. 사실 아직 신입사원이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일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더욱 성장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로

다시 에코를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낼게요.

짧지만 저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ECHO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3월을 좋아한다.

2018년의 3월은 나에게 조금 특별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

대한민국의 20대라면 달게 되는 이름표 취준생.

졸업과 동시에 나는 학생에서 취준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두 번이나 떨어지고,

이력서를 읽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신입은 뽑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고 경력직을 우대했다.

그러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험을 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신세 한탄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길은 있다. 이걸 분명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가장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말이다.

가끔 너무 두렵고 힘들면 피해야 된다.

어떻게 온전히 즐길 수가 있을까. 하지만 즐기게 된다면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 두 배가 된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엄마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나 자신도 왜 우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는 나에게 "두렵고 가기 싫으면 가지마."라고 했지만 한번 피하면 계속 피할 것 같아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갔다.

1차, 2차, 최종까지 두려웠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사실 즐기지도 못했지만, 얻은 쾌감은 짜릿했다.

나는 그렇게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나는 나름대로 이 생활을 피하지 않고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처음이라 시행착오,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는 걸 거라고 생각하며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적응해가고 있다.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 후배들에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하나는 꼭 말해 줄 수 있다. 무엇인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피해도 괜찮지만, 피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은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작년까지 에코의 편집위원장으로 나도 졸업하고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써야지 다짐했는데 조금 빠르게 찾아와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에코는 말했지 나를 자랑스러워 하라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진 2018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현재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광고 교육 분야이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길! 에코를 읽는 독자라면 누구에게나 답을 해 줄 자신이 있다. 광고 쪽이 아니라 개인상담까지도 들어 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하길!

다음 글에는 더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에코에 실리길 바라며.



201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 COMM TO YOU

2017 COMM.ON 학생회에 이어 2018 새로운 학생회 COMM TO YOU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우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항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우들의 학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ECHO를 통해 그들의 다짐과 진심이 전달되길 기대한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COMM TO YOU 학생회장 14학번 강동욱입니다.

우선 'ECHO' 웹진을 통해 학우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입후보를 하면서 다짐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고충이 있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우들이 기댈 수 있고 항상 옆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자' 라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학생회장 입후보를 도전해보라고 추천해주었던 학우들과 힘든 자리이지만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말해주었던 친구들, 마지막으로 볼 때마다 저에게 "잘할 수 있을 거다" "고생 많다" 하며 격려 해주었던 학우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COMM TO YOU 학생회의 명칭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COMM TO YOU'는 언제나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경청하고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학우들의 꿈이 보다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학우들의 열정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희 학생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믿음직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생회는 '기댈 수 있고 항상 옆에서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학생회 그림은 소통하는 학생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 안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공약 안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식 오픈 채팅방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듣고 해결 해 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생회비를 모아 예산 집행을 하지만 정작 학우들은 어디서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행사 후 학과 게시판에 공지를 하여 학우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구성원 간에 멘토 멘티단을 만들어 신입생 학우들이 재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멘토는 멘티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항상 소통하며 파악 할 것입니다. 멘토는 한 달에 한 번씩 집행부 구성원들로 로테이션 방식으로 돌아가며 집행부 구성원은 모든 멘티와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공약 안건들은 물론 생소하고 도전적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학생회는 공약 안건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대표하는 자리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의 낙마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두 번째 자격심사 때도 긴장을 많이 한 탓에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만 남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걱정이 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COMM TO YOU 학생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할 수 있지만 "초부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무슨일이든지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



,





대구대학교 축구부 웹매거진, DUF 3대 편집장 유지은 취임

대구대학교 축구부 웹매거진, DUF 3대 편집장 자리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유지은 학우가 취임했다. 누구보다 축구취재에 열정적이었던 그녀가 편집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ECHO가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편집장이 된 유지은 학우의 작은 포부를 들어보았다.

3월 1일. 대구대 축구부 웹매거진 DUF MEDIA 2대 편집장 이보왕(대구대 행정학 14)학우에 이어 3대 편집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여성 편집장이기도 하다.

나와 DUF MEDIA의 인연은 특별하다. 2015년 고교 재학 시절 고등축구리그를 보다가 평소에 축구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여 축구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경북대구리그'를 개설해 현재까지도 선수단, 학부모, 팬들에게 경기 정보와 사진을 공유해주고 있다. 페이지를 운영하며 축구관련직종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대구대에 입학하기 전부터 DUF MEDIA의 콘텐츠를 눈여겨봤고, 대구대에 진학하면 DUF MEDIA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다.

수시 지원을 통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합격했고, 입학 후 2017년 3월 심층면접을 거쳐 DUF MEDIA 3기에 합류했다. 자발적으로 만든 플랫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디자인 업무를 시작했다. 2017시즌 대구대가 치른 공식 경기 30경기 중 28경기를 현장 취재했고, 연습경기과 훈련, 행사까지 취재하며 열심히 활동했다



DUF MEDIA 동문회는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현장을 지키며 팀과 함께 발전한 내가 편집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고, 나는 DUF MEDIA 역사상 최초 여성 편집장이 이끄는 2018시즌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되었다.

DUF MEDIA 3대 편집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하지만 편집장이라는 위치에서 서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하며 숭선수범해 후배 기자들의 모범이 되고, 항상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졸업생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리더가 되겠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수도권 대학 최초 축구부만의 웹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수단과 함께 발전해 꿈을 이루는 '선순환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2018시즌 대구대 축구부 캐치프레이즈 'BE THE PRIDE! IMPRESSIVE 2018!'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인상 깊은 시즌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DUF MEDIA도 마찬가지다. 투지와 근성의 '대구대 정신'으로 DUF MEDIA 4기와 함께 현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게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 2018 U리그가 3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막한다. 대구대는 서문운동장에서 문경대와 첫 경기를 가지게 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도전하라.

이영윤의 워킹 홀리데이

호주,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곳

먼저 한 발짝 다가간다면, 원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

눈이 부신 햇살이 비치던 3월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낮은 건물, 탁 트인 해변, TV로만 보던 나무들,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20대 평범한 남자의 1년여 간의 호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Hello my name is elio’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그 문장. 호주 입국 후 세어하우스 룸메이트 친구에게 들은 첫 영어였다. ‘헬, 헬로우 마네임...이즈 영윤 리...’ 나름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쉬운 영어가 뭐가 그리도 어려웠는지(사실 영어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였지만...) 호기롭게 영어 배우러 왔는데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거주했던 바이런 베이라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호주 워홀러들이 가는 곳과는 달랐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흔히들 들어본 대도시와는 달리 바이런 베이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환경을 소유한 작은 관광도시다. (과거 포카리스웨터 CF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렇기에 큰 빌딩 자체가 없으며 큰 해변과 자연에 둘러싸인 관광요소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다.

바이런 베이를 거주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시드니나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에는 한국인이 정말 많다. ‘내가 호주에 있는 건지 명동에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이다. 반면에 바이런 베이는 한국인의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정말 외지 그 자체인 곳이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한국인이라도 볼 적엔 ‘오,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 아무래도 도시보다 영어를 쓸 기회가 많았다.

바이런 베이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아니 자세히 말하자면 달랐다. 먹는 것부터 생활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는 노는 법까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처음 다름을 느낀 곳은 먹는 것에서였다. 한동안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잠깐 했었다. 바이런 베이는 소위 말하면 촌(?)이기 때문에 많이 없었다. 한식당은커녕 그 흔한 김치조차 없었다. 토종 한식파인 내게는 너무도 가혹했다. 과장해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피자나 햄버거를 끼니에서 빼놓은 적 없이 먹었다. 거기에선 밥과 같은 존재이기에. 물론 일본 식당이나 다른 서양 나라 식당도 많았지만, 정착 초기 돈이 없는 내게 피자나 햄버거는 정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평생 먹은 피자보다 그 1년에 먹은 피자 크기가 훨씬 클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학원에서 간혹 하는 요리실습은 오래간만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대부분의 워홀러는 일하기 전 영어 학원에 다닌다. 영어공부를 위해 학원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호주에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우리랑 별다를 건 없다. level에 따라 class를 나누고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한다. 다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 위해 각각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요리실습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으므로 한 번의 실습으로 한식·양식·일식·중식 등 많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외국 친구가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었을 땐 괜스레 뿌듯하기도 했다. 요리실습과 더불어 축구, 발리볼, 여행, 스쿨파티 등의 프로그램은 서로를 친해지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실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말까지 안 통한다면 더더욱 더. 학원에 다닐 당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참 안 도와주는 영어라는 녀석 때문에 뭐가 좀 해보고 싶어도 답답함만 속으로 삼켰었다. 오로지 영어라는 도구 하나만으로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창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창피함 탓에 친구는커녕 쉽게 말 붙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정서적인 측면도 한몫했다. 학원에는 한국인은 별로 없지만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들은 정말 많았다.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마음도 더 잘 맞았고 친해지기도 쉬웠다. 단지 서양인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아우라가 있는 것인가, 뭔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적잖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동양인 파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일본어에 말문이 트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하는 스쿨파티를 참석했다. 학원 발코니에서 다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노는 자리인데 한 서양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 'I want you guys to come first' 아차 싶었다. 돌이켜보면 서양인이라고 벽을 치고 다가가지 않았던 것 나 자신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었고 상대가 누구든 친구같이 대해주었다. 사실 좀 놀라웠다. 처음 본 사람에게 친한 척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편하게 친구처럼 지낸다는 모습이.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사소한 인연 하나도 절대 허투루 흘리지 않았다. 망설임이 없었다.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다가갔고 노력했다. 내가 본 호주는 그러했다.

바이런 베이만의 분위기가 있다. 탁 트인 전망, 높은 하늘, 따스한 공기. 해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따스한,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거리공연을 하는 곳을 자주 볼 수 가 있다. 누가 뮤지션이고 누가 관객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어울려 같이 즐겼다. 술집을 가면 정해진 테이블이 없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일행이었고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이후 달라지려 노력했다. 먼저 다가가 말도 붙여보고 영어가 안 되면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다. 직접 식당을 찾아가 이력서를 돌리며 잘 봐달라고 했고 거기서 하는 지역 영화 행사제의 봉사에도 참여해보았다. 망설이지 않고 뭐라도 하려고 도전하다 보니 영어가 차츰 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았다.

학원에 다니고 이것저것 일을 하며 하나둘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일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학원에서, 비치에서, 술집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여 대화하는 즐거움이 1년간의 타지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다. 망설임이 조금은 사라져서였을까.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사실 무서웠다), 트래킹 등 한국에 있으면 해보지 못했을, 아니 않았을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았고, 단지 상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생각이 나면 그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금 내가 호주에서 한 모든 도전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다.

길거리를 지나다 모르는 누군가 인사라도 '뭐지?' 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당연해 보였고 기분마저 좋았다. 내가 1년여 간 호주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게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 온 지 두 달. 무섭도록 빠르게 한국에 적응해가고 있다.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지나간 추억들을 하나씩 곱씹어 본다. 호주에서 느낀 그 분위기는 오로지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기에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다. 혹시 망설임이 든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니 용기 내 한 발만 다가가 보아라. 원하든, 혹은 생각지 않던 기회가, 문이 열릴 것이다.

20대, 도전해봐야 할 나이가 아닌가.

C

communicating

3월은 날 미치게 해



작년 유난히 매섭던 바람은 우리의 종강을 알렸고, 올해 유난히 따뜻한 햇볕은 우리의 개강을 알렸다.

개강을 앞둔 우리의 감정을 설명할 단어를 찾다 보니 '미친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2학년이 된 나는 2학년 우울증을 겪는 중이다.

1학년 때와는 다른 부담감이 겨울 방학 동안 날 짓눌렀다.

나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거기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다. 그러다가도 조금 더 힘내보자며 날 다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나의 기분은 무한 반복이었다. 확신이 없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개강은 점점 다가왔다. 정말 불안과 불안 속에서 개강은 날 미치게 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개강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손, 발이 차가워 질듯 한 긴장감은 나에게 새로운 희열감을 주었다. 불안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미친 듯이 좋았다. 개강 전 불안에 떨던 나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꿈과는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개강은

날 미치게 했다.



3월은 날 따뜻하게 해

까만 코트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걷던 그때 나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공공 감추던 손을 빼 그 따뜻한 바람을 품에 안으면 어느새 '봄'이 왔음을 느낀다.

나에게 안긴 바람을 있는 힘껏 안아 유독 바쁘게 지냈던 지난 나의 삶을 떠올려본다.

딸내미 밥 굶을까 걱정했던 엄마에게 차갑게 전화했던 나,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했던 딸 바보 아빠에게 바쁘다고 투정부렸던 나,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
왜 그렇게 따뜻하지 못했을까?
깨진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따뜻한 바람이 나에게 손을 내민 그 날,
따뜻한 바람이 나를 안아주던 그 날,

나는 바람을 마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춘(春), 3월 이랬다

- #1. 아직까지 바람이 차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여전히 옷깃을 여민다. 그 틈 어디에서도 봄을 찾을 수 없다. 겨울, 겨울의 길이가 이렇게도 길었던지 생각에 잠긴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어딘가 어정쩡하다. 그리 부드럽지도, 그리 뾰뾰하지도 않은 모양새는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다.
- #2. 우리는 이제껏 유연한 대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가. 수많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집합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 나의 약점은 언제고 나를 위협할 무기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린 상처를 받아도 받지 않은 척, 상처를 줘도 그게 상처가 아닌 척하며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여야 한다. 이렇게 보니 우리 모두 훌륭한 희극인이구나.
- #3. 나는 환절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래도 굳이 뽑아보자면, 환절기를 말로 하고 글로 쓸 때 가슴 언저리가 살짝 저린 기분 때문이다. 나는 나약하고 아픈 느낌의 단어를 연민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언제고 시선을 줄 만큼 동정심도 차고 넘친다. 3월은 유독 그렇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월(月)이라 생각하기 때문일까. 겨울 언저리와 봄의 언덕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니 3월도 나와 같이 동정심이 차고 넘쳐 그런 걸까.
- #4. 길을 걷다 올려다본 나무에 꽃봉오리가 생겼다. 성격이 급한 건지 부지런한 건지 분간이 안 된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모든 것을 관망하는 걸 좋아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나 를 제외한 모두가 서두른다. 앞만 보는 그들의 눈이 차라리 가자미처럼 옆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그 당시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왔다 조금만, 천천히 가길.
- #5. 봄에 태어난 이들은 꽃 같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이는 봄에 태어나 겨울에 별이 되었다. 곧 그의 생일이 다가올 텐데, 부디 그 날은 그 이처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푸른 하늘이 대지를 덮고, 포근한 꽃잎이 축하해주기를.
- #6. 무심코 튜 플레이리스트에 오래된 가수가 부른 '방랑자' 라는 노래가 있다. 저 바람처럼 영원히 설 곳 없는 어디인가 외로운 방랑자여, 저 구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디선가 날 볼듯한 그대여, 당신이 3월을 연민하고 사랑하길 바라본다.

어서와! 새내기 처음이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눈 깜짝할 새 나는 1학년부터 3학년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진작해볼걸 하는 후회도 많이 생기는 시간이 요즘 많아졌다.

새내기들은 이런 후회를 덜 하게 참고하길 바라며 글을 써보았다.

대학의 꽃 과팅

새내기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타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과팅이니 CC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확률은 거의 적다고 한다는
주위의 말들이 있다..
그래도, 마당발이 되기에는 좋은 경험!

CC, 할 수 있으면 해라

등하교부터 밥 먹기, 수업듣기, 캠퍼스 데이트까지
매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CC의 메리트가 아닐까?
대학생만의 커플, 나중에 보면 추억이다.
헤어지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깨지면 되지 않나? :)

농활을 해보자!

농활이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말한다.
대구대학교는 매년 여름 방학 농활을 실시하고 있다.
시골에 가서 봉사활동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손이 생기고
우리는 봉사시간도 받고 일석이조! 그리고 농활을 하면서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안부전화 한 통씩 하는 손자 손녀도 되어보자!

방학 때 놀지만 마라

종강하기 전에는 방학 때 공부 계획, 여행 계획 다 짜놓고
막상 종강하면 신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뒹굴뒹굴하게 되는데, 그때는 집에서만 있는 게 좋아서 모르지만
개강하고 나의 방학을 되돌아보면 말로는 설명 못할
후회가 휘몰아쳐 올 것이다.
방학 때 무계획으로 놀지만은 말길!

학점 관리는 1학년 때부터

누가 1학년 때 놀아도 된다고 했는가 억압과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되면 자유라는 단어를 기대하며 대학교에 입학해서
탱자 탱자 놀다 보면 나의 학점은
언젠가 바닥을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학점관리는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대리출석 하지마라

아침에 눈 뜨니 수업 시작 10분 전. 대리출석을 부탁해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한테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겠지만 걸리게 되면 그날 하루
출석 인증을 위해 했던 행동이 내 친구와 나의 출석을 왜장창
망쳐버리게 되는 행동이 되고 말 것이다.

H

hosting

media-communication department bucket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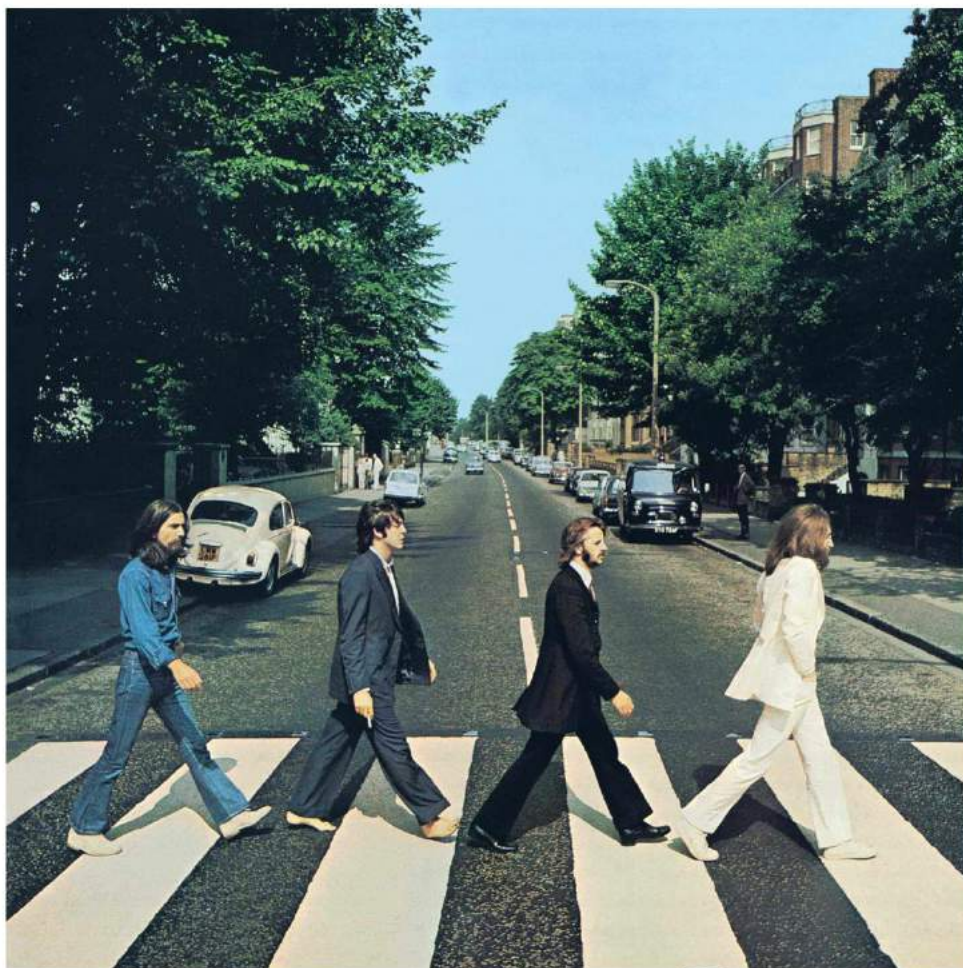
2018년 첫 에코를 맞이해 버킷리스트를 받아보았다.

소소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창한 미컴과 학우들의 버킷리스트.

이번 년이 끝나갈 때쯤 13호를 다시 찾아와 내가 과연 다 이루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 | | | |
|-------------------|------------------------|-------------------|
| 1. 다이어트 | 17. 연애하기 | 33. 책 100권 읽기 |
| 2. 부모님께 효도하기 | 18. 장학금 많이 받기 | 34. 시그널 다 외우기 |
| 3. 행복해지기 | 19. 학점 관리 잘 하기 | 35. 전 세계 술 다 마셔보기 |
| 4. 기숙사 말고 자취도 해보기 | 20. 진로와 관련된 대외활동하기 | 36. 지각, 결석 안하기 |
| 5. 친구들과 전국 찍기 | 21. 아이슬란드 여행가기 | 37. 껌 안 삼키기 |
| 6. 취업준비 | 22. 우리나라 맛집 탐방 | |
| 7. 영상편집 배우기 | 23. 대학공모전, 대기업공모전 대상받기 | |
| 8. 해외유학 | 24. 학점 a 이상 받기 | |
| 9. 등록금 전액 면제 | 25. 고 3때 꿈 이루기 | |
| 10. 해외봉사활동 | 26. 졸업장 받기 | |
| 11.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기 | 27. 세계일주 | |
| 12. 다양한 대외활동 해보기 | 28. 미국여행 | |
| 13. 알바하기 | 29. 토익 900점 | |
| 14. 과탐하기 | 30. 장학금 3번 받기 | |
| 15. 외국어 공부 | 31. 술 줄이기 | |
| 16. 혼자 해외여행하기 | 32. 건강하기 | |

또 다른 출발선



앞 에 서

새내기만큼이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이들이 있다.

호칭만으로도 열정이 느껴지는 '복학생'.

기나긴 나라의 부름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그들의

“마치 ~~처럼”을 만나보자.

1. 자기소개해주세요.

상연 : 안녕하세요, 저번 학기에 복학한 14학년 김상연입니다.

성은 :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학하게 된 14학년 김성은입니다.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2. 복학을 준비하면서 가진 각오가 있을까요?

상연 : 처음에는 그냥 전역했으니까 복학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오니 열심히 사는 동기들과 후배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어요.

'아, 나는 군대도 다녀왔는데 진짜 뭐라도 해야 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시도하게 되었어요.

성은 : 일단 학생이니 수업에 열심히 할 겁니다. 성격도 쟁기면 더 좋고요.

복학하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일보다 제 꿈과 관련한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3. 각오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였나요?

상연 :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꿈이 생겼어요. 이걸 비밀로 할게요.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요. 그러다 대구대학교 신문사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내가 가려는 길을 걷기 위해 거쳐야 할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수습기자로서 열심히 일하니 이번에 정식 기자가 되었어요!

제 명함이 나오니까, 이제! (웃음)

성은 : 제가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 9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실 제가 뚜렷한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소에 관심을 두셨던 드론을 저에게도 권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이 학원에 등록하고 시험도 쳐서 자격증도 땀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없어 지금까지 방향을 많이 했던 터라 드론지도사라는 꿈이 생겨서 좋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스스로) 뿌듯합니다.

4. 올해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연 : 별 탈 없이 끝내지요. '아, 올 한 해도 빨리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만큼요.

그리고 올해 끝엔 '잘했다.'는 소리가 듣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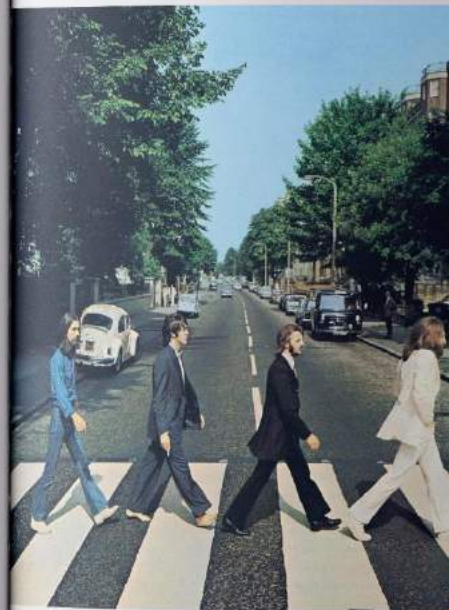
성은 : 드론지도사가 되기 위해 비행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있을 시험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5. 당신의 목표는 "마치 ~~처럼"

상연 : 마치 사계절처럼. 흐르는 시간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성은 : 마치 레드벨벳 콘서트 예매처럼. 드론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지만, 현재 준비하면서 멋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 THING!

Girls Can Do Anything, 얼마나 당차고 멋진 말인가.
곰씹으면 당연한 말이 오늘 날에는 희망과 불편함을 떠안은 문장으로 전략해버렸다.
우리는 외쳐야한다. 우리의 무한한 힘을, 무궁한 꿈을, 원대한 미래를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한다.
나를 힐난하고 재단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손가락을 향해 외쳐라, **Girls Can Do Anything!**

#이성이라 자유롭지 못하다 : 누군가가 씌운 우리의 코르셋

우린 한 시간 일찍 일어나 머리를 만지고, 우리 얼굴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고 화장하기에 급급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의 시선 속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우리가 있다.
언제부터 스스로 꾸미고 관리하는 강압적인 삶을 살게 된 걸까?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코르셋. 이제 그 코르셋을 벗을 시간이다.

사회는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의 프레임을 거누며 여성을 아름다움, 조신함, 상냥함, 가녀림 등의 프레임에 가두었다.
남자들은 하지 않는 화장을 하며, 밤늦게 다닐 때는 최대한 몸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네가
잘못한 거야' 주변사람들은 여성을 타박하며 성추행의 원인 제공은 여성이라며 말을 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성을 떠나 같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며, 이게
바로 성차별이다. '여자란 자고로 조신해야해'라는 문장 속에 '사람'을 넣어 보자 '사람은 자고로 조신해야해' 문장의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게 바로 성차별적 발언이며 여성들에게만 강하게 씌워진 코르셋이자 프레임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남성들에게 적용이 될까? 남성이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옷은 무조건 노출이
적은 옷으로 입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까? 여성이 매일 듣는 잔소리처럼 익숙해진 말이라면,
남성은 '이게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씌운 우리의 코르셋을 벗을 필요가 있다.
학교를 갈 때, 회사를 출근할 때 잠 잘 시간을 줄여 우린 화장을 한다.
굳이 우리가 매일 잠을 한 시간 덜 자면서까지 화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죽고 싶을 땐 하되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화장은 예의다’라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아니 거의 99.9%가 남성이 여성에게 외모 평가, 혹은 비하를 하며 하는 말들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코르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남성의 외모를 보며 ‘화장은 예의다.’라는 말은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남성들도 하지 않는 화장을 여성들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다이어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살을 빼는 자체에 외모 지상주의
적 코르셋이 여성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시선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딱 한번 사는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오로지 여성이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화가 난다.

여성으로서 살며 우린 남성들에게 치욕스러운 말들을 들어왔다.

‘그렇게 대장 노릇 좀 하지 마,’

‘학교에 그 옷 입고 가면 남자애들 관심 못 받을 거야,’

‘헤프게 굴지 마,’ ‘그날 밤에 무슨 옷 입고 있었어?’,

‘생리 중인가 보네,’ ‘웃으면 훨씬 예뻐 텐데,’

‘그냥 칭찬한 거였어,’ ‘여자치고 많이 먹네,’

‘너 페미니스트 뭐 그런 거야?’, ‘애 안 낳겠다고? 허전할까 봐 걱정 안돼?’,

‘나이 먹는 생각 좀 해’

등등 이중 하나 이상은 들어봤어도, 안 들어 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들던 우리는 어땠을까? 치욕스러워도 화를 내지 못하고, 멧쩍은 웃음으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되받아 치는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더 이상 ‘조신한 여성’이 아닌 ‘여자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누군가가 씌운 우리의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이지 않아야 한다.

#용기를 바라보는 : ME TOO

불편한 시각에 대한 고찰

이제까지 조용히 있었으면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 뭐냐?

우습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이제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 과연 자의만으로 가능한 것이었나.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으로 매일이 망가졌다. 그 날의 피해는 트라우마가 되어 피해자가 발걸음을 땔 때마다 엉겨 붙었고,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존재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잔혹한 눈초리에 어디 하나 털어놓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도대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말인가. 가해자는 영악해서 권력과 지위를 들먹이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앞으로 삶을 영위할 힘까지 쥐고 흔드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용기를 냈다. 당신이 운운하는 타이밍의 문제는 과연 누구의 탓인가.

당신은 지금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한 것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의 괴상한 논리를 짚어주겠다.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나. 이 사회는 이상하다. 온갖 방법으로 가해자를 두둔한다. 궁금하지도 않은 가해자의 피치 못할 사정, 속내, 그간 받았던 부정한 사연들로 또 하나의 다른 포지션을 가해자에게 지정해준다. '기구한 사연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애초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처신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범죄사실이다.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도 사회가 그들에게 변명과 면죄부를 쥐여주려 그의 삶을 취재하고 만들어낸다. 그래,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번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살펴보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와 관련한 피치 못할 사정, 속내, 그간 받았던 부정한 사연들이 뭐가 존재한다 말인가. 그 가해자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범죄를 기워 맞춰 보라. 그냥 그들은 이상한 성도덕과 잘못된 관념, 성욕이 머리를 지배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괴상한 존재일 뿐이다. '뒤늦게야 벌을 받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공개적인 프로그램에서 밝힐 필요까지 있나.

혹시 피해자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이면을 말해주겠다. 당신이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투 운동의 글을 보았다면 분명 이렇게 말을 했겠지. '조작 아니냐? 익명이라고 지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잖아.' 혹은 더 나아가 증거를 내놔라, 종용하며 익명 피해자의 신상을 하나, 하나 밝혀나갈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로운 건 없다. 자신의 이름에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름표가 따라다니며 지지와 응원을 받는 동시에 온갖 추악한 말들과 시선이 따라붙을 거라는 건, 앞서 우린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낸 건 순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다. 영악하고 잔혹하게 권력과 지위를 내세우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언제고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따라붙을 수많은 시선을 견뎌낼 각오를 하고 얼굴과 이름을 밝혔다. 국민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으며 그렇게 그들은 용기를 냈다. 신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범죄 사실을 낱알이 밝혀야만 한다니, 그들을 잔인하다고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그들을 몰아낸 사회가 잔인한 것이 아닌가. 어째서 우리는 용기를 용기로 바라보지 못하고, 공감할 줄 몰라 불편함만 내세우고, 논리를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해 고집만 부리는가. 가해자는 가해자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한가? 미투 운동은 가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마녀사냥과 다름이 없다? 이거 하나는 알고 가길 바란다.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한 여성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18-3838



보라색의 예찬

21년을 살며 보라색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보여 준 사람이 이 친구 말고 또 있을까?

내 대답은 '없다.'이다.

올해의 팬톤 컬러를 떠올리면 동시에 이 친구가 떠올랐고,

그녀의 생각이 문득 궁금해 졌다.

팬톤이 선정하기 전부터 보라색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팬톤이 뽑은 울트라 바이올렛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18-3838

핫핑크보다 진한 보라색을 더 좋아해

누구나 다 알법한 아이유의 '팔레트' 가사중 일부분. 아이유가 핫핑크보다도 더 좋다고 한 그 진한 보라색, 바로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 이다.

사실 필자는 보라색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올해의 컬러가 보라색이 되었다는 걸 듣자마자 '아, 올해 내 운수는 대박이겠구나.'하고 생각했고 컵, 옷, 볼펜, 심지어 이불까지도 보라색일만큼 보라색의 광팬이다. 보라색을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특별하니까!' 라고 하고 싶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색보다도 보라색만이 가진 그 특별함은 유일무이하다. 그 오묘한 빛깔은 마치 우주의 한 부분을 가져온 듯 일렁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밤하늘처럼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혀주는 느낌을 준다.

보라색은 사실 옛날부터 귀한 색으로 여겨졌는데, 색배합이 어렵고 보랏빛을 내는 염료가 없어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라색을 황제의 색 이라고들 했다. 보다 접하기 쉬운 오늘날에 들어서도 보라색이 가진 특별함 때문일까. 보라색, 그것도 울트라 바이올렛처럼 진한 색을 일상에서 패션이나 생활 등에 쉽게 물들이지는 않는다. 보라색이 유독 소화하기 힘든 컬러라고도 해서 쉽게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다. 고작 액세서리 종류에서 가끔 보이는 정도? 사실 우리에게 원색에 가까운 보라색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색이다. (물론 나는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런데 왜 팬톤은 2018년 올해의 컬러로 울트라 바이올렛을 선정한 걸까?

전부터 팬톤의 올해의 컬러들을 보면서 왜 보라색을 선정할 안 해주지? 란 생각을 종종하곤 했다. 사실 팬톤이 뭐길래 올해의 색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 일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저 1년에 한번 색을 정하는 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팬톤은 디자인 회사 쪽으로 분류 되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처럼 디자이너들보다 컬러리스트가 더 많은 '색의 기원'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공장에 빨간색을 써달라고 하면 정확히 빨강 중에서도 무슨 색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명도와 채도 치수에 따라 같은 빨강이라도 천차만별의 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색상에 이름을 붙이고 컬러 넘버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다. 실제로 코카콜라에서도 팬톤의 색상 코드를 이용해 색을 뽑고 이용하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팬톤의 색상 코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컬러계의 대표격이다 보니 팬톤에서 색을 발표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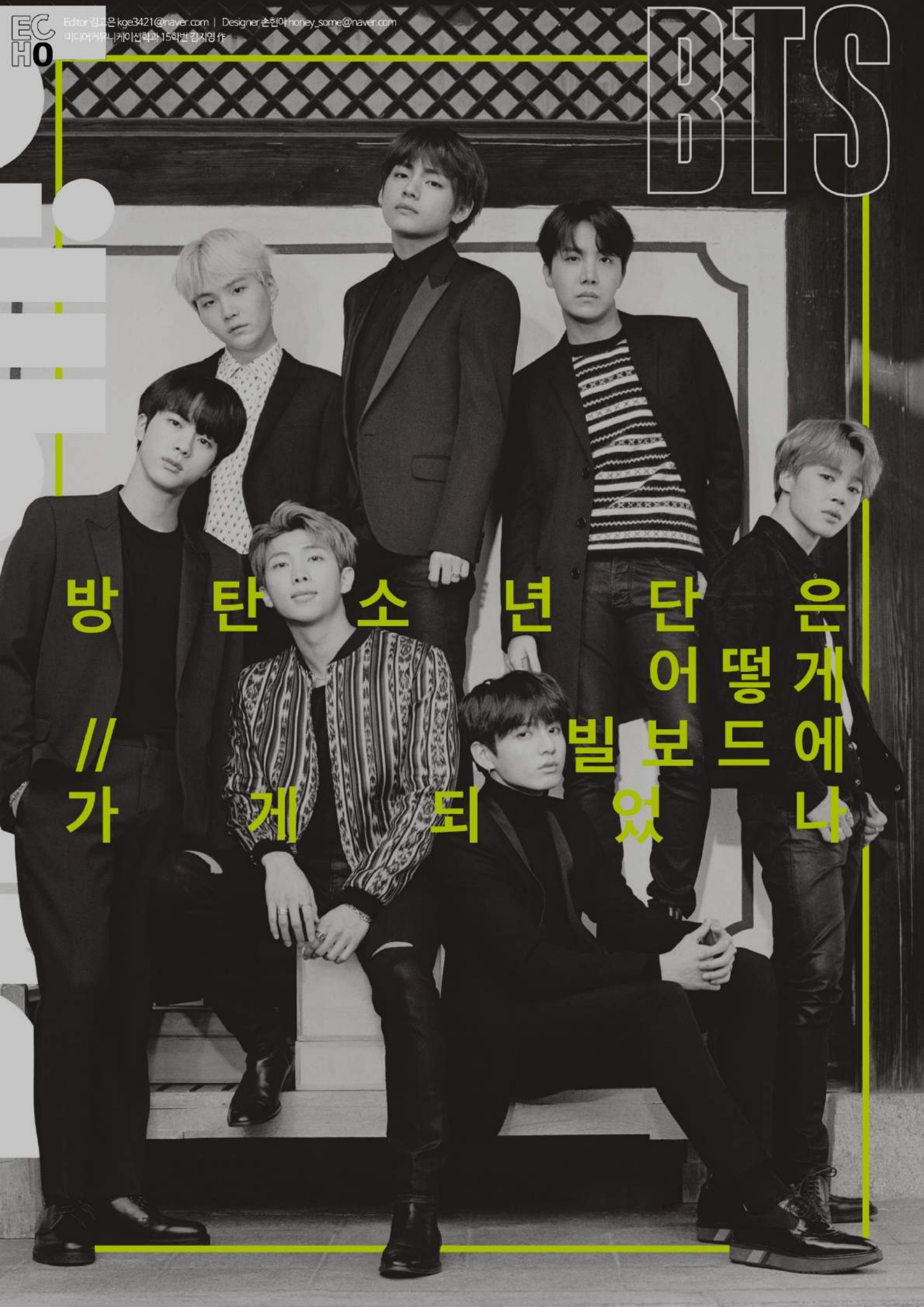
그렇다면 팬톤이 과연 예지력을 가지고 색을 발표하는 거냐, 묻는다면 답은 NO! 실은 올해의 컬러가 근거 있는 선정 기준은 아니다. 그저 팬톤에서 '이런 색이 유행 할거야' 하고 내놓으면 기업들이 앞다퉈 그 색을 이용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기 때문에 팬톤의 발표가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대신 팬톤 측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선정한다고 한다. 올해의 울트라 바이올렛도 '앞으로 다가올 신시대에 요구되는 상상력을 표현' 한다는 의미를 뒀다고 한다.

처음에 얘기했듯, 시중에서 보라색 물건을 보기란 꽤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라색이 올해의 컬러가 됨으로써 다른 건 몰라도 2018년 한 해 만큼은 보라색의 향연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기대가 생긴다. 벌써 삼성에서는 갤럭시 S9 시리즈에 바이올렛 컬러를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각종 2018 S/S 컬렉션에도 그 보기 어렵던 보라색이 눈에 띄게 등장하기 시작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발걸음에 호뭇해하며 필자는 오늘도 보라색 물건을 차곡차곡 수집 중이다.

울트라바이올렛, 여러분도 한번 물들어'보라'!

BTS

방탄소년단은
//가게되있었던
가게되있었던
가게되있었던





작년 국내 미디어들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모두 집중했다.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때문이다.

//

작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앨범 및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및 소셜 참여 지수 등의 빅데이터와 5월 1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셀 멘데스와 함께 후보에 올라 경쟁을 펼쳤다. 이 상은 2011년 처음 생긴 이후 6년 내내 저스틴 비버가 수상했으며, 다른 수상자를 시상식 무대에서 호명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상을 수상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독보적인 콘텐츠이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는 타 케이팝 가수들과는 조금 다르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한국 아이돌의 콘텐츠는 보통 음악방송과 예능과 같이 편성된 방송으로만 접할 수 있었으나 방탄소년단은 유튜브를 통해 타겟층을 국내 팬들을 넘어 전세계 유튜브 사용자로 잡았다. 이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홍보용 목적을 넘어 개인 일상을 털어놓는 브이로그, 촬영 비하인드, 자체 콘텐츠 제작으로 수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도 다른 점을 보여줬다. 바로 1분이 넘지 않는 영상에도 모두 자막을 사용하는 '로컬라이징'을 잘 사용했다는 점이다. 해외 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콘텐츠를 영어 자막을 이용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또한 힙합들의 콘셉트를 잡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힙합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콘텐츠의 로컬라이징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비결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음악에 있다.

방탄소년단은 본인들의 메시지를 담은 솔직한 음악을 보여줬다. 문화적 폐쇄성이나 하이얼라키,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 메시지와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방탄소년단 기획자 방시혁 프로듀서는 방탄소년단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비주얼이 아름답고 음악이 총체적 패키지로 작용하며 무대 퍼포먼스가 멋있는 '케이팝 고유 가치'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특정 해외시장을 노리지 않고 음악을 제작한 것이 해외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블루오션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껏 해외시장에서 조금씩 케이팝이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본다면, 케이팝에는 해외시장에 대한 공략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은 그들만의 색깔을 입힌 후 힙합으로 대변되는 흑인 음악 베이스 장르를 더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구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여실히 했다고 본다. 케이팝의 장르는 생소하지만 힙합이나 블랙뮤직은 장르 음악으로서 익숙해 청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가수로서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 2012년 싸이가 빌보드 차트 진입 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부담감을 버리고 이제껏 해왔던 음악을 그대로 쪽 밀고 나간다면 빌보드에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새내기 꾸미기

20'S
Moment

20살, 어쩌면 이미 뷰티가 익숙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나이.
어려운 스킬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추천해봤다.

#3



#1. 클리오

이름 값하는 높은 커버력에 비해 촉촉한 발림성을 가진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지속력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킬커버 파운데이션 쿠션 XP SPF50+PA+++
15g 3만2천원.

#2. 네이처리퍼블릭

본인에게 맞는 브로우 제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다루기 쉬운 오토 펜슬타입을 추천한다. 땀에 강하고 심이 얇아 그리기 쉽다.

네이처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0.08g 7천원.

#3. 홀리카 홀리카

음영 컬러 2개와 포인트 컬러 1개, 글리터 컬러 1개로 구성되어있다.
순서대로 바르기만 하면 눈화장이 완성된다.
홀리카홀리카 피스 매칭 섀도우 4구 팔레트
6g 1만3천원.

#4



#5



#6



#4. 베네피트
피부톤에 상관없이 소화할 수 있는
핑크빛 블러셔. 브러시도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도 좋다 단델리온 핑크 블러셔
7g 4만2천원.

#5. 키스미
고정력 강하기로 유명한 마스카라.
이별 후 평평 울고 난 뒤에도 속눈썹만
멀쩡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
6g 1만8천원.

#6. 입생로랑
덧바를수록 글로시함이 배가 되는 틴트.
메이크업의 꽃, 립에는 조금 더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
루쥬 뷔르 꾸뛰르 베르니 아 레브르
6ml 4만3천원.

#새내기 꾸미기 눈치게임으로 성공하는 기본 템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인 당신들을 위하여

개강을 앞둔 우리는 느긋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옷장 속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옷들은 구석으로 밀고 계절에 맞는 옷들은 구매할 시기! 하지만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면? 다 같이 눈에 힘을 주고 눈치 게임을 시작해보자! 가장 많이 입는 기본 템들 위주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법. 에디터의 주관적인 총 5개의 기본 템을 소개하겠다!



1.척 테일러 올스타 데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발이며, 어디든지 가장 무난하게 신을 수 있다. 블랙이 아니더라도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노란색, 혹은 빨간색 등 다양한 색을 구매하여 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척 테일러 올스타 '70 빈티지 캔버스와는 다른 라인으로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 추천하고 싶다.

2. 트렌치코트[블랙]

너무나 많이 입고 다니는 베이지색 트렌치에 신물이 났다면, 좀 더 차별하고 스토리가 있을 거 같은 블랙 트렌치코트를 추천한다. 블랙의 트렌치는 무난하고, 베이지 보다 눈에 띄지 않아 유행을 타지만 타지 않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카디건(라운드넥, 브이넥)



저녁에는 아직 낮은 온도로 우리의 몸을 떨게 한다.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되 브이넥 카디건을 챙겨 우리의 따뜻함도 놓치지 말자! 브이넥 이외에 라운드넥 카디건 역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너로 입을 땀 캐주얼하며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원피스를 입었을 때 포근한 카디건을 매치한다면, 추위와 패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4. 청바지

청바지 하면 다양한 종류의 청바지가 떠오른다. 그 무수히 많은 청바지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청바지로 다양한 코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라운드넥 카디건과 부츠컷 진을 매치하거나, 블랙 트렌치에 스키니 진과 기본 티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깔끔한 코디를 완성 시킬 수 있다. 만약 바지를 살 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청바지는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시작해야 한다.



5. 볼캡

대학생이라면 무난한 디자인의 볼캡은 필수이다. 전역을 하고 점점 자라나는 짧은 머리를 감출 수 있으며, 머리를 감지 않은 날은 모자 하나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강한 햇볕에서는 우리의 피부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난한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은 운동화 혹은 모자이다. 신발보다, 가격이 저렴한 볼캡 등으로 다양한 코디가 연출 가능하다.

ECHO가 눈치게임에서 선별한 총 5가지 아이템에 만족하는가? 만약 이중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당신 아주 그웁잇! 기본 템으로도 우리는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다. 개강이 다가온 3월 ECHO를 곁에 두고 있는 당신이라면 입을 옷 걱정은 그만! ECHO가 당신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겠다

대학생 재테크의 첫걸음, 통장 쪼개기

반갑습니다. 선임에디터 나중일입니다. 같은 용돈을 받고 돈이 남는 친구에 비해 돈이 부족한 경험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펀돈이 모여 큰돈이 된다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펀돈을 무시하게 됩니다.

통장 쪼개기로 재테크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경험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사회진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사회진출 후에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무분별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통장 하나로 급여와 용돈을 받고 지출까지 해결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순간,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충동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통장 쪼개기는 필수입니다. 자금을 쓰임새에 따라 분산하고, 쓸데없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자금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재무환경에 뜻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재테크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대학생부터 경험해야 사회진출 때 유리
통장 쪼개기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 급여통장 (잔액은 항상 0으로 유지)

시중은행의 급여통장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급여통장은 기존 입출금통장과 달리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용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월세나 통신비, 공과금, 보험, 적금 같은 고정지출을 자동납부하고, 이체한 후 남은 돈을 생활비통장, 비정기지출통장에 이체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급여통장은 잔액이 남아선 안 됩니다. 꼭 분산시켜야 합니다.

2. 생활비통장

생활비통장은 식비, 교통비, 여가활동비 등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통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해서 새는 돈을 막는 겁니다. 의지가 부족하기에 애초에 돈을 쓸 상황을 들어막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용돈을 줄인다는 다짐을 하는 것보다 애초에 생활비통장에 덜 이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3. 비정기지출통장

비정기지출통장은 고정지출 통장인 생활비통장과 달리 시즌별 지출이라고 해서 경조사비, 자동차보험료, 세금 등을 지출할 때 사용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기 초에만 구입하는 교재비,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돈을 축적해두었다가 사용해도 됩니다.

4. 비상금통장

비상금통장은 이른바 ‘저수지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가뭄 대비 빗물을 모아뒀다 비상시에 수문을 열어 사용하는 저수지를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비상금통장은 급여의 5~10%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한 달 지출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단기 고금리에 속하는 증권사의 CMA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CMA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대표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계좌 개설을 강화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은행을 통틀어 한도계좌(1일 이체한도 30만원)를 단 한번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장 쪼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숨어있는 계좌와 돈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니 숨어있는 통장을 찾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초년생의 꿈 ‘내집마련’은 1위에 가깝습니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민영주택(민간 업체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분양 당첨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아파트 매입이 가능합니다. 분양의 기회는 먼저 1순위 가입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통장과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은 최소 납입금액인 월 2만 원만 납입해도 무관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계획에 따라 최고 금리 3.3%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고,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부산 등의 은행 중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붙는 증권사 CMA 통장

CMA(종합자산계좌관리)는 기본적으로 ‘증권상품’입니다.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그 돈으로 대신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대리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장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월금통장보다는 여유자금을 넣어두는 비상금통장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CMA 통장은 RP형, 종금형, MMF형, MMW형 4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종금형은 원금이 보장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상담은 필수입니다.

CMA 특징

1.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다
2. 일반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3.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 된다
4. 인터넷뱅킹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5. 종금형 CMA 외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반통장

입출금 O

0.1% 금리

CMA

입출금 O

1.2% 금리

적금통장

입출금 X

1.5% 금리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TIP!

1.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은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사건으로 공단의 도움을 받은 29세 이하 청년근로자 수만 1만2천850명으로, 구제된 체불 임금액은 963억 원에 달합니다. 무료법률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에코 인스타그램 OPEN!

